



## 김효신의 스페인 여행기 스페인, 더 멀리 저 너머로

### 13. 마드리드 메트로와 스페인 골초들

푸에르타 델 솔 광장에 머무르는 동안 벌써 1시가 넘었다. 지치고 배도 고파서 점심 식사를 하러 가기로 했다. 오늘 점심은 ROI 추천하는 '살라 데 데스피에세(Sala de Despiece)' 라는 곳에 가서 따빠스(Tapas)를 먹을 예정이었다. 주소는 까에 데 폰사노(Calle de Ponzano), 11, 푸에르타 델 솔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면 약 20분 정도 거리였다.

우리는 광장 옆 솔(Sol) 지하철 역으로 내려갔다. 스페인 지하철은 처음인데 공간이 매우 넓고 깨끗한 편이었다. 검색해 보니 마드리드 지하철 제 1호선이 연결된 1919년에 지어졌다고 한다. 백 년이나 된 지하철이었지만 오래 되었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피나 데 차마르틴(Pina de Chamartin) 방향으로 제1호선을 타고 세 정거장을 지나 이글레시아(Iglesia) 역에서 내려야 한다. 마드리드에서 가장 바쁜 역 중에 하나라고 하더니 정말 오고 가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자동 티켓 판매기에서 지하철 티켓을 샀다. 일인당 1.5 유로. 10 회용 티켓을 사면 12.2 유로로 좀 싸지는데 앞으로 지하철을 얼마나 자주 탈지 몰라 그냥 일회용 티켓으로 끊었다. 티켓을 사고 플랫폼에 서서 잠깐 기다리는 사이에 1호선이 왔다. 기차 내부도 역시 넓고 여유롭다. 앉을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냥 서서 가기로 했다.

손잡이를 잡고 서서 흔들리면서 가는 사이 지하철을 타고 있는 스페인 사람들을 조금 살펴본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보다는 주말 외출에 나선 보통 사람들인 것 같았다.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고 간혹 졸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다들 소탈하고 평범한 인상들이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어쩐지 21세기 사람들 같지가 않고 옛날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복장이나 태도보다는 뭔지 모르게 느껴지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수십 년 전에 머무르고 있는 듯한 인상이었다.

스페인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는 동안 목적지 이글레시아 역에 도착했다. 역에서 빠져 나와 약 5분 정도 걸어가니 살라

데 데스피에세가 나타났다. 평범한 거리에 위치한 작은 레스토랑이었다. 스페인에서 유명한 타파스 바 형식의 레스토랑인데 값싸고 간편하게 먹는 타파스를 고급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유명한 레스토랑이라 한다. 흔하게 먹을 수 없는 타파스 요리가 나온다고 ROI 꼭 가보자고 해서 왔다.

하얀 벽에 작은 문이 나있는 살라 데 데스피에세 앞에는 기다리는 손님들이 줄을 길게 서 있었다. 어찌나 줄이 길었는지 순간적으로 오늘 여기서 점심 먹기는 글렀다는 낭패감이 들었다. 나는 우선 줄 끝에 가서 서고 ROI 앞으로 가서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물기로 했다. 내 앞에는 스페인 사람 일행 네 명이 서 있었다. 남자 두 명이 여자 두 명으로 나이는 삼십 대 후반 정도로 보이고 다들 모피 코트에 가죽 잠바 등으로 멋지게 차려 입었는데 문제는 네 명이 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 뒤로 가 줄을 서자마자 나는 바로 앞에서 날아오는 담배 연기에 질식할 것 같은 상태가 되었다.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곧 ROI 돌아왔다. "엄마, 어떻게 하지? 한 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는데.....에에에에.....에취! 콜록콜록!" 담배연기를 들이마신 R은 기침을 한바탕 하고 놀라서 앞에 일행을 쳐다 보았다. 스페인 사람들은 남녀노소 다 담배를 많이 피우고 우리가 줄 서 있는 곳이 바깥이라 담배를 피워도 무방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바로 뒤에 사람들이 서 있는데 남의 얼굴에 연기를 마구 날리면서 전혀 미안한 기색없이 대화에만 열중하고 있는 그들을 보니 기가 막혔다.

우리는 여기서 기다려 식사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의논했다. 골초 일행이 앞에 있어서 연기를 마시는 것이 괴롭지만 현재 마드리드에서 가장 인기라는 유명 맛집에 이왕 왔으니 먹고 가자는 결론을 내렸다. 햇빛이 내리쬐고 있어도 추운 날이라 서서 기다리는 것이 그리 힘들지는 않았다. 단지 줄담배를 피우는 스페인 사람들 뒤에 서 있었으니 물러서기도 하고 고개를 돌려 연기를 피하기도 하며 애를 썼지만 우리 폐는 아마도 검게 그을려 버렸을 것이다.

## 메디케어 처방약보험

치과: 본인이 원하시는 치과의사 선택과 전반적인 치과 다 커버되는 우대플랜 (\$1500-\$2000/yr) - (지역별로 다름)

- ★ 올해 65세가 되시는 분 (메디케어 수혜자)
- ★ 시니어 우대플랜 - Part C (A+B+D)
- ★ Extra Help (처방약 보조)가 필요하신 분
- ★ Medicare와 Medicaid (메디칼)을 같이 갖고 계신 분
- ★ 현재 플랜을 바꾸고 싶으신 분
- ★ 타주 혹은 다른 카운티에서 이사 오신 분
- ★ Supplement Plan (PPO)
- ★ 의사나 병원 선택의 자유



\*29년의 오랜 경험으로 어르신들이 필요하신 혜택을 최선으로 찾아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 에이전트와 상담하세요

**Sally Kim Licensed Insurance Agent**  
(714)714-6393 License No. 0B07129  
Skim8588@yahoo.com

## 부에나 팍 양로병원

Buena Park Nursing Center ★★★★★

### Skilled Nursing

IV 투여, 당뇨, 통증관리, 투석케어  
외상치료, 호스피스케어 등

### Subacute Unit

Respiratory, Tracheostomy Care  
Ventilator 등

#### 서비스

한국음식 또는 미국음식  
한국인 스태프 / 한국인 소셜워커  
한국책, 신문 / 24시간 한국방송  
다양한 한인교회 봉사활동

#### 재활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메디케어, 개인, 메디칼, HMO, PPO 취급합니다

www.buenaparknc.com

한국어: 562-240-3516 한국분이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영어 : 714-828-8222 Fax: 714-828-1467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www.yoon-chiro.com

## 윤원일 알바인 척추신경 YOON FAMILY CHIROPRACTIC

### 전문 진료 및 치료 분야

- 카이로 프랙틱 교정
- 물리치료 및 마사지
- 통증 치료
- 레이저 치료
- 운동요법 및 스트레칭
- 두통 및 뒷목 당김
- 목, 허리, 등 통증
- 척추 측만증
- 어깨, 팔, 다리 통증
- 만성피로
- 학생 및 직장인 자세 교정
- 아이들 자세 및 걸음걸이 교정
- 교통사고 후유증
- 산전후 통증
- 인바디



레이저치료

운동요법

**봄방학 스페셜**  
Spring Break Special  
성장기 청소년  
자세 스크리닝



척추신경과 전문의 윤원일  
Dr. Wonil Yoon D.C.

- 각종 보험(PPO)
- 여행자 보험
- 학생보험
- 자동차 보험
- 무보험자용
- Cash Plan

**949-769-3623**  
3500 Barranca Parkway Suite 325  
Irvine, CA 92606

- B.A., Psychology and Social Behavior (Specialized in Clinical Psychology)
- University of Irvine
- Southern California University of Health Science
- Board of International Chiropractic Association
- Board of California Chiropractic Association
- CH 18 건강정보 다수출연, 우리신문 컬럼 다수개재